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7]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9. 9. 30 | 발행인: 이은희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실태

선민정¹⁾

목 차

1. 서론
2.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3.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4. 정책적 시사점

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 제주지역은 201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9.1%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통계청, 2018).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52.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서(정형옥, 2018) 노동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비정규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제주도에서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제주도는 2018년 3월에 제주형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점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인지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음. 또한 많은 연구들(김종숙 외, 2012; 안미수, 2003)에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하나 제주지역에서 이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들은 매우 적은 편임.
-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지역코드를 공개하고 있는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사용하였음. 다만 해당 조사는 고용형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와 근로계약기간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단순하게나마 제주지역 비정규직의 현황을 추정하고자 함. 이러한 추정은 정형옥(2018) 연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²⁾에서 유사하게 이루어졌음.
- 해당 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해본 결과, 2018년 상반기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1만명 정도로 임금근로자 중 44.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6만 3천명 정도로 임금근로자 중 52.2%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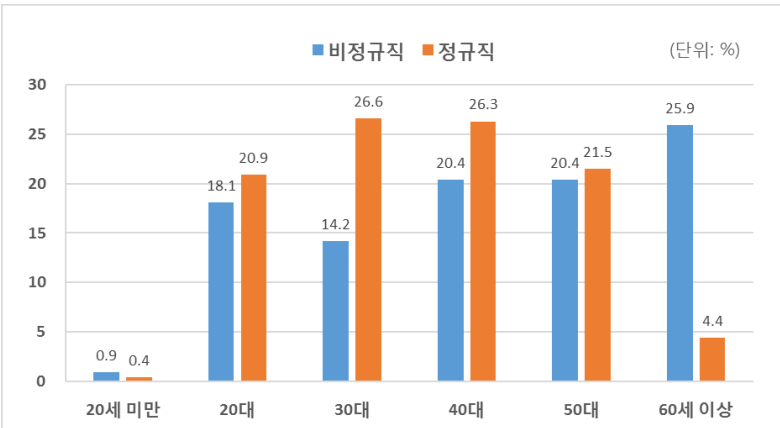
2) https://gsis.kwdi.re.kr/gsis/kr/tbllInfo/TbllInfoList.html?vw_cd=MT_ATITLE

2.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1) 연령대와 교육수준 : 높은 연령대와 낮은 교육수준에서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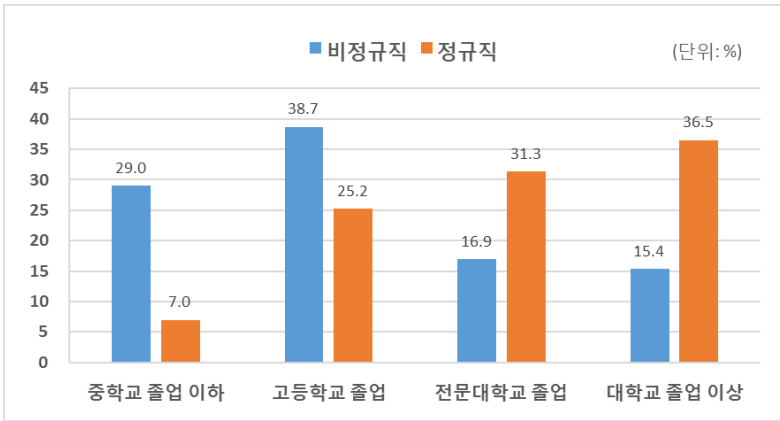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났음. 즉 이들은 60세 이상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40대와 50대가 20.4%를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20대는 18.1%, 30대는 14.2%로 나타나 연령이 높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음. 반면 이들에 비하여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났음. 즉 30대가 26.6%, 40대가 26.3%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그림 1]).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었음. 이들의 교육수준은 여성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확연히 낮은 편임. 즉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29.0%로 나타났음. 반면에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전문대학교 졸업자가 31.3%로 높게 나타났음([그림 2]).

[그림 1]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연령대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그림 2]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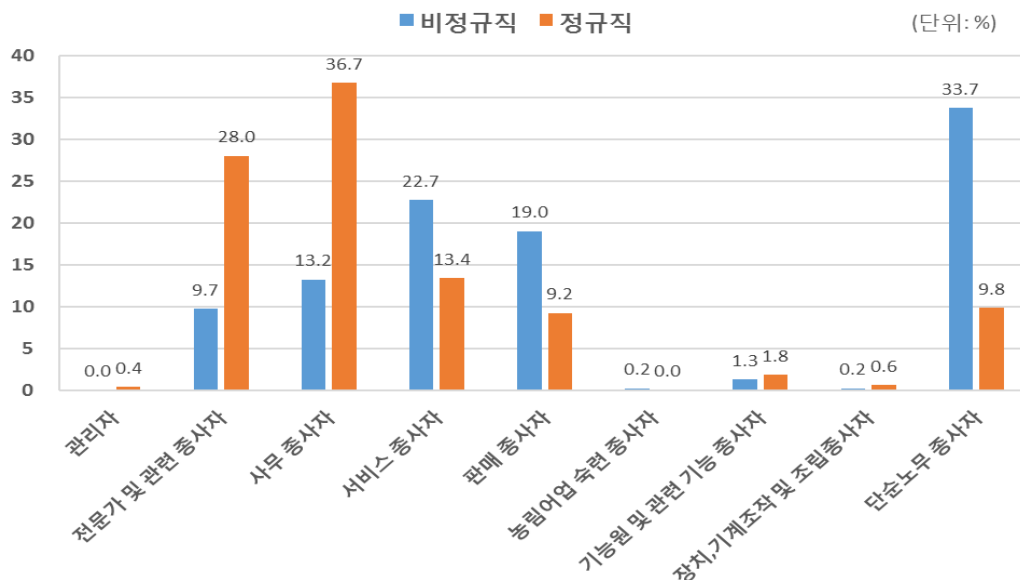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2) 직업 분포 : 단순노무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에게서 많이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 및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75.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단순노무 종사자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서비스 종사자가 22.7%, 판매 종사자가 19.0%로 나타났음([그림 3]).
- 반면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가 1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9.7%로 해당 직업군에서는 적게 나타났음. 이에 비해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0%로 나타나 해당 직업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그림 3]). 이러한 결과는 직업군에 따라 같은 여성이라도 고용형태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또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여성 임금근로자에게는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매우 낮게 나타났음.

[그림 3]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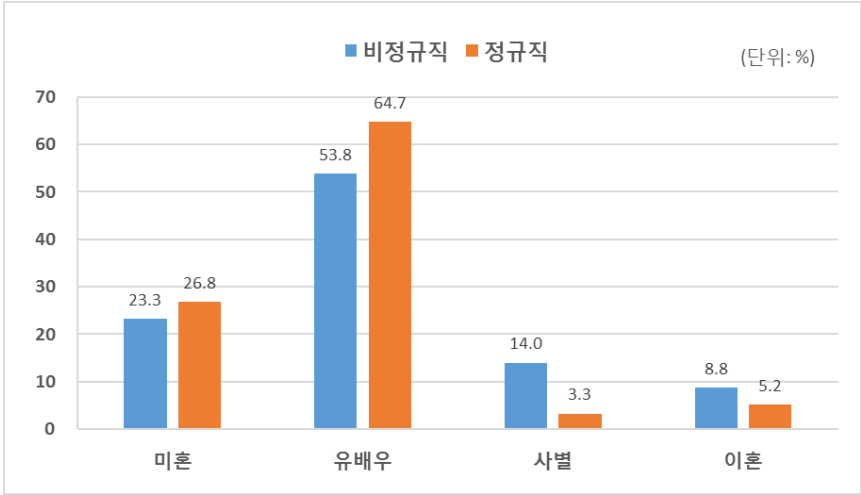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3) 혼인상태 및 경력단절 경험 여부 : 유배우자 및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인 경우는 23.3%로 나타났음. 이와 유사하게 여성 정규직 근로자들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7%, 미혼인 경우가 26.8%로 높게 나타났음([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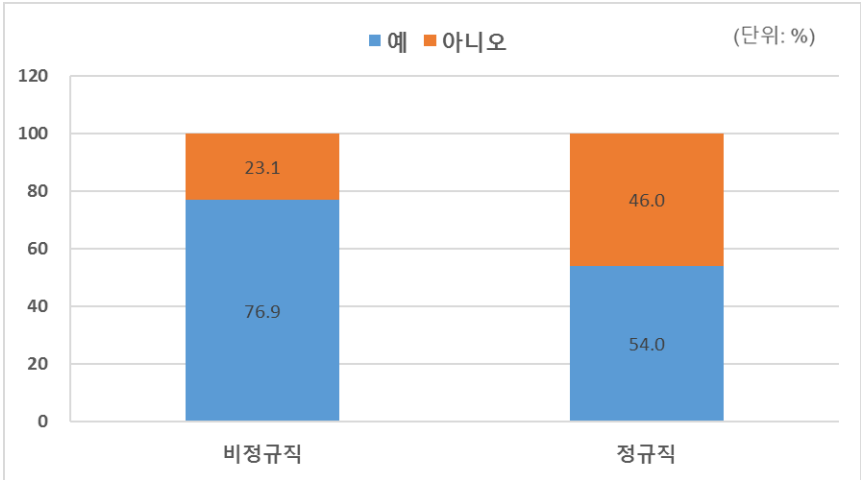
- 반면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별한 경우가 14.0%, 이혼한 경우가 8.8%로 나타나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 3.3%, 5.2%로 나타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음([그림 4]). 즉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에는 사별 및 이혼으로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가 7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여성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경력단절 경험이 22.9%p 더 높은 것임([그림 5]).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많이 고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경력단절 경험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근무환경에 더 많이 처해 있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임.

[그림 4]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혼인상태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그림 5]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경력단절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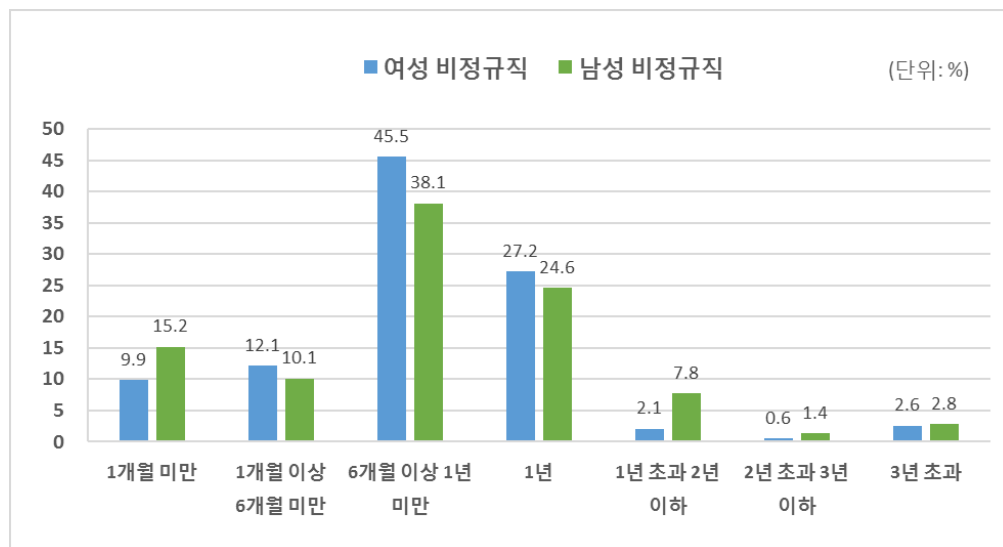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3.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1)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1년이 27.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2.1%, 1개월 미만이 9.9%로 나타났음.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4.7%를 차지하고 있었음(그림 6).
- 이와 유사하게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이 24.6%로 그 뒤를 이었음. 다만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가 7.8%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5.7%p 높게 나타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그림 6).

[그림 6]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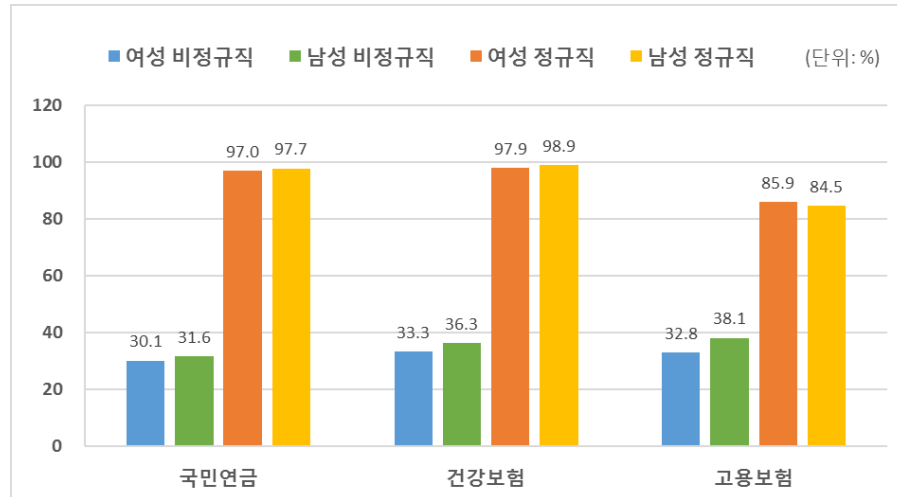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2)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비율 :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입 비율이 낮음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여성 및 남성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30.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33.3%,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32.8%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여성 및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97.0%, 97.7%로 나타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66.9%p, 67.6%p보다 높았음. 또한 이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97.9%, 98.9%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각각 64.6%p, 65.6%p 더 높게 나타났음.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85.9%, 84.5%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53.1%p, 51.7%p 높게 나타났음(그림 7).

- 또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모든 부문에서 약간씩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에서는 5.3%p 낮게 나타났다([그림 7]).

[그림 7]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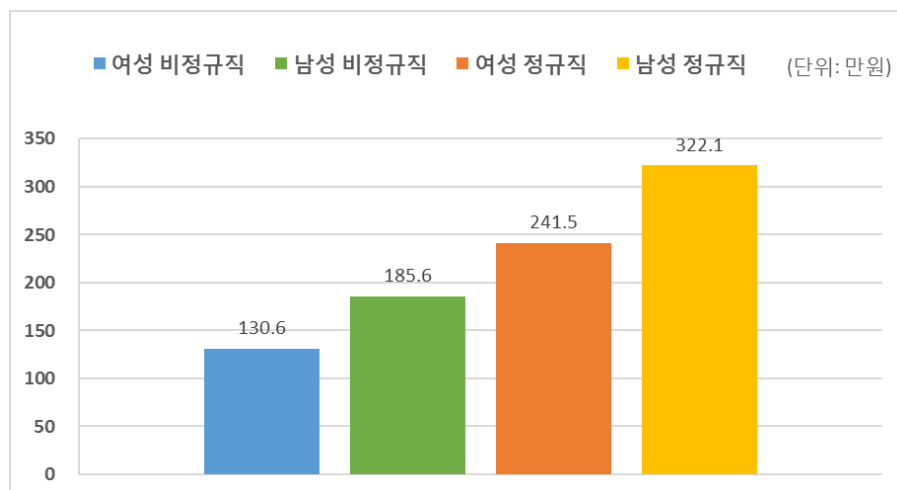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3)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 성별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은 130.6만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22.1만원인 것에 비하여 191.5만원 더 적은 것임. 또한 동일한 고용형태인 남성 비정규직과도 55만원의 평균임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즉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매우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고용형태인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더 낮게 나타나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성별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 수준은 생활 유지의 어려움까지 예상됨.

[그림 8]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자료 :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4. 정책적 시사점

1)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연령과 낮은 교육수준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단절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인적 특성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더욱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와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기업에서 만행되는 고용형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근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점검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등의 시행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및 판매 직군의 임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실태, 정책욕구 등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이 요구됨.

〈참고문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8), 「지역별 고용조사」, 2018년 상반기.

정형옥(2018), 「경기도 비정규직 여성노동 특성과 정책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종숙 외(201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미수(200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여성연구논집」, 14.

